

Focus

: 제12회 산업보건학술제

함께 고민하며 미래로 나아가는 길

제12회 산업보건 학술제

지난 12월 5일, 대한산업보건협회 창립 56주년을 기념한

‘제12회 산업보건학술제’가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렸다. 산업보건학술제는 산업보건이
당면한 다양한 이슈와 해결방법을 고민하는 자리로 노동자 건강 보호와 증진에 든든한
디딤돌이 되어 왔다. 16편의 산업보건 우수사례(논문)가 발표되었으며, 각 분야 전문가 발표가
이어진 심포지움과 함께 해산산업보건학술상, 산업보건특별공로상 시상도 진행되었다.
해를 거듭할 수록 그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산업보건학술제 현장으로 들어가본다.

글 이용국 사진 김지원



대한산업보건협회 창립 56주년을 기념한 '제12회 산업보건학술제'



1



2



3



4



5

- 1 — 개회사 김준연 회장
- 2 — 축사 고용노동부 김동욱 과장
- 3 — 축사 대한직업환경의학회 원종욱 회장
- 4 — 축사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 최은숙 회장
- 5 — 축사 한국산업보건학회 정지연 부회장



산업보건학술제에서는 16편의 산업보건 우수사례(논문)가 발표됐다

산업보건 현장의 생생한 사례와 연구 발표

산업보건학술제(이하 학술제)에서는 16편의 산업보건 우수사례(논문)가 발표됐다. 우수사례 발표는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 최은숙 회장과 한국산업보건학회 정지연 부회장을 좌장으로 하여 진행됐다. 명상치유캠프 시행 사례(연세대학교 의료원), 뇌심혈관질환 관리를 위한 짠맛단맛 테스트 적용결과(대구근로자건강센터), 미세플라스틱의 작업환경측정 적용에 관한 연구(장원산업보건센터), 유해화학물질의 통합 관리 프로그램(대구경북지역본부) 등 다채로운 사례와 연구결과

를 살펴볼 수 있었다. 발표시간이 다소 짧게 느껴질 수도 있었지만 오랜 시간 연구해온 발표자들의 노력과 열정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각각의 발표 이후 심사위원을 중심으로 질의응답과 애정 어린 조언이 이어졌다. 2부에서는 개회식을 비롯해 심포지움과 시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대한산업보건협회(이하 협회) 김준연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학술제는 함께 의견을 모으고, 고민하는 자리”라고 언급하며, “학술제에 발표되는 옥석 같은 사례와 연구를 토대로 향후 양질의 학술업적이 생산되고 공유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 1 — 지정토론
- 2 — 우수사례 발표 이후 질의응답과 애정 어린 조언이 이어졌다
- 3 — 연재발표 고신대 의대 김정원 교수
- 4 — 연재발표 청주의료원 김정민 과장
- 5 — 연재발표 인제대 부산백병원 김건형 교수



축사를 한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김동욱 과장은 “경제와 산업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산업보건을 위협하는 일 역시 증가한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협회가 산업보건의 전문역량을 강화하고 발전에 더욱 기여해주기를 특별히 당부했다. 각 순서의 좌장을 맡은 대한직업환경의학회 원종욱 회장,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 최은숙 회장, 한국산업보건학회 정지연 부회장도 축사로 학술제를 빛냈다.

산업보건 발전을 위한 씨앗을 뿌리다

대한직업환경의학회 원종욱 회장을 좌장으로 진

행된 심포지움의 주제는 ‘근거중심 건강진단의 변화와 대처’였다. 건강검진 항목을 정하거나 관련 기준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근거’다. 이에 대해 연제발표에 참여한 연사들은 근로자건강진단의 변천 과정을 정리하고 국가건강검진과 근로자건강진단의 차이점을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인제대 김건형 교수는 근로자건강진단제도의 변천 과정과 그 사유를 살펴보면서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국가건강검진과 근로자 건강진단의 차이와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고신대 김정원 교수는 근로자건강진단제도의 검사항목



- 1 ——— 해산산업보건학술상을 수상한 창원대 하권철 교수
- 2 ——— 경품 추첨에 나선 정영숙 사업총괄 이사
- 3 ——— 경품 추첨에 나선 이상태 경영총괄 이사
- 4 ——— 산업보건 우수사례(논문) 수상자들





산업보건에 대한 수많은 의견이 오갔던 뜻깊은 자리였다

변화와 제도적, 행정적 검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마지막 연사로 나선 청주의료원 직업환경의학과 김정민 과장은 '산업보건에서의 근거기반의학'을 주제로 발표했다. 특히 폐결핵 감진 보고서를 중심으로 건강검진의 경제성(효율성), 형평성(공정성)에 대해 고민할 과제를 제기하였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가톨릭대 이원철 교수를 좌장으로 고용노동부 김동욱 과장, 한국노총 임재범 실장, 경총 임우택 본부장 등 노·사·정 각 분야의 전문가가 초청돼 주제에 대한 지정토론을 벌였다. 앞선 연제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근거중심 건강진단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 심도 있게 토론했다.

이어서 '해산산업보건학술상' 수상 논문의 발표와

시상도 이어졌다. 이번 해산산업보건학술상은 '유리규산 노출과 위암과의 관련성에 대한 메타분석' 논문을 발표한 가천대 이원형 교수, '환경성 담배연기 노출과 금연 영향에 대한 연구'를 발표한 창원대 하권철 교수, '한국 근로자의 일과 삶의 균형과 건강과의 관계'를 규명한 가천대 김지운 교수가 각각 수상했다. 산업보건특별공로상과 산업보건 우수 사례(논문) 수상자에 대한 시상도 이어졌다.

독립운동의 얼이 서린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개최되어 더욱 뜻깊었던 제12회 산업보건학술제. 협회의 이러한 활동들이 하나의 작은 씨앗이 되어 노동자 건강보호와 산업보건 발전에 더 큰 열매로 맺어지기를 기대해본다. ☺